



제목	오스만 제국은 왜 몰락했는가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에디터
발행일	2004. 2. 28.
저자	앨런 파머 이은정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479
ISBN 또는 ISSN	978-8985145824

내용 요약

『오스만 제국은 왜 몰락했는가』는 방대한 영토를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이 쇠퇴한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가 분석한 쇠퇴의 원인은 유럽 제국주의의 영토 욕구, 서구화와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내부 분열, 정치적, 종교적 실권을 장악하려는 세력들의 권력 투쟁,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민족들 간의 내분과 갈등 등이다. 서술 방식은 시대 순이지만 그 속에서 쇠퇴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 구도가 돋보인다.

1장 이슬람의 범람은 2차 비엔나 포위의 실패에 대해, 2장 서구의 도전은 서구의 신성동맹과 반격, 예니체리 군단의 위세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 튜립 시대와 그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번영과 러시아의 위협을, 4장 서구화를 위한 시도는 해군력 강화를 통한 군제개혁을 담고 있다. 5장 술탄 셀림의 이상한 운명에서는 나폴레옹과의 관계, 개혁의 실패에 대해, 6장 수수께끼 같은 마흐무드 2세는 서구화 추구와 그리스의 저항을 서술하였다. 7장은 마흐무드의 개혁, 8장 유럽의 병지는 탄지마트(Tanzimat 재건) 개혁과 러시아의 발칸 지역 간섭, 9장은 크림 전쟁과 변화하는 오스만 제국을 그렸다. 10장은 헌법 제정과 동방의 위기에 대해, 11장은 이집트와 독일의 상황을, 12장은 아르메니아 상황과 그리스와와의 전쟁을 설명하였다. 13장은 청년터키당 조직, 14장은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영토욕, 15장은 1차 대전과 터키 경제의 파탄에 대해 서술하였다. 16장은 케말 장군의 독립 전쟁으로 종결되었다. 터키공화국이 되고 난 후 오스만 왕조의 운명을 설명한 에필로그 부분이 다른 책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은 설명이어서 독특하다. 각 장마다 주석이 꼼꼼하게 달려 있어 이해를 돕는다.